

동남아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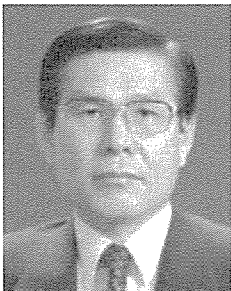
1,643TEU급 컨테이너선 매입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이 최근 1,643TEU급 컨테이너선 '조에 글로리' 호(MV. Zoe Glory) 매입, 말라카직항서비스에 투입한다.

동남아해운 관계자는 이 선박은 MSS(Malacca Strait Service)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용선료로 운항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선 도입으로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운항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주해운

이 사장 고베항 한국대표



범주해운 이상복 사장

범주해운 이상복 사장은 지난 4월1일부로 일본 고베항 한국대표부 대표로 새로이 지명되어 활동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고베시는 현재 세계 각지와 일본 국내항을 연결하는 허브포트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네델란드, 영국, 중국 등 8개국에 항만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호 협력하여 항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3월까지의 범주해운 김남빈 고문이 대표부를 맡아 왔으나, 지난 4월 1일부로 동사 회장에서 고문으로 위촉됨에 따라 고베항 한국대표부를 이상복 사장으로 변경 지명했다.

세양선박

서울선박운용회사에 출자

세양선박(대표 임병석)이 출자한 선박운용회사인 '서울선박운용주식회사(대표 이수길)'가 지난 5월17일 해양수산부 등록을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

해운산업과 금융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본금 70억원으로 설립된 서울선박운용회사는 해운업계 중견선사인 세양선박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은행, 하나증권 및 대한화재가 주요주주로 참여했다.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의 이수길 대표이사를 비롯, 해운과 금융분야의 전문가가 상근해 자금조달, 선박의 취득, 임대 및 취득한 선박의 관리, 매각 등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대형선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시장환경에서 서울선박운용은 수익성이 보장된 중소형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선박운용 관계자는 "투자자의 이익은 물론 선사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에 앞장서는 선박금융 전문 운용회사로 성장,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초기 사업개발단계에는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위주로 선박금융을 운용할 계획이나 향후 사업안정을 이룬 후에는 탱커, LNG, LPG 등 특수선박에도 투자를 해 나갈 것이라고 사업전략을 설명했다.

SK해운

임직원 장애우와 함께 체육활동

SK해운 이정화 대표는 5월30일 울산시 북구



산하동의 '태연 재활원'을 방문하여 동행한 SK 해운 자원봉사단원 30여명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태연 재활원은 213명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해 제빵, 가축사육, 채소 기르기 등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SK해운 자원봉사단은 이곳 장애우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인 탁구의 활성화를 위해 탁구대와 탁구용품을 기증했으며, 대형 세탁기와 평소 재활원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정화 대표와 자원봉사단원들은 재활원 주변 등반로를 따라 장애우와 1대 1 산책의 시간을 가지고, 축구/탁구 게임 등 체육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SK해운 자원봉사단원들은 직접 매직 풍선을 만들어서 장애우들에게 증정하고 재활원 장애우들로 구성된 댄스반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장애우들과 어울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STX Pan Ocean

싱가포르에 해외법인 설립

STX Pan Ocean(대표 이종철)은 동남아 지역에서의 벌크 및 컨테이너 사업 확대를 위해 6월1

일 싱가포르 현지법인(STX PAN OCEAN SINGAPORE PTE.LTD.)을 설립했다.

STX Pan Ocean은 싱가포르 법인의 기능을 해운사업 뿐만 아니라, 해운과 연계된 신규사업 개발까지 다각화 할 계획이다.

STX Pan Ocean은 'Global Network 핵심축 구축'을 위한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중국 상해사무소를 현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해외 주요거점을 법인화함으로써 현지밀착형 경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48억5,976만원이며, STX Pan Ocean이 100% 투자했다. STX그룹은 이번 해외법인 설립으로 계열회사수가 19개사로 늘었다.

한편, STX Pan Ocean은 흥아해운과 공동으로 600 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투입해 5월28일 중국 상해를 출항해 홍콩을 경유, 싱가포르 및 자카르타를 주1회 연결하는 CIS(China Indonesia Service)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상해~싱가포르, 상해-자카르타 구간의 운송시간을 각각 7일과 10일 이내로 하여, 중국발 동남아시아항 화물 운송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 Pan Ocean은 기존의 한·중, 한·일, 남중국 항로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노선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노선 확대를 시작으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지중해 서비스 강화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www.hanjin.com)이 중

동의 U.A.S.C(United Arab Shipping Co.S.A.G.)사, 그리고 일본의 MOL(Mitsui O.S.K. Lines Ltd.)사와 공동으로 올 8월부터 아시아-중동-지중해간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상하이로 시작으로 얀티엔, 싱가포르, 제노아, 포스(Fos), 발렌시아(Valencia), 지오이아 타우로(Gioia Tauro), 제다(Jeddah), 호 파칸(Khor Fakkan), 싱가포르, 상하이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각 사별로 한진해운이 3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UASC사와 MOL사가 각 2척씩 총 8척을 투입하여 매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한진해운은 아시아-지중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또 다른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다. 오는 11월경부터 4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한진해운은 아시아-지중해 노선을 주 2회 기항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중해 지역으로의 서비스를 확충함에 따라 이 지역의 영업입지 강화했으며, 8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UASC, MOL과의 공동운항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오는 8월부터 롱비치-멕시코-과테말라 간의 새로운 피더서비스를 시작한다.

MGS(West Coast-Mexico-Guatemala Service)로 명명된 동 서비스는 롱비치(Long Beach)를 시작으로, 만자니요(Manzanillo, 멕시코), 푸에르토 케찰(Puerto Quetzal, 과테말라), 만자니요, 엔세나다(Ensenada, 멕시코), 롱비치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118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여 매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진해운은 이 새로운 피더서비스가 기존의 태평양 구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

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서비스 범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와 화물 수송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그 동안 선복임차를 통해 제공했던 이 지역 피더 서비스가 단독운항으로 바뀔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인 면의 향상과 더불어 이 지역의 영업 입지가 강화되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日 소니로부터 최우수 선사상 수상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은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소니(SONY)'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상선은 최근 일본 도쿄의 웨스턴 도쿄호텔에서 소니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소니로부터 최우수선사상인 '글로벌 파트너 선사(Global Partnership Carrier)'로 선정됐다.

소니는 “현대상선이 급변하는 세계의 해운환경 변화 속에서 능동적 대처를 통해 어느 선사보다도 신속하고 안정되게 화물을 수송해 왔다”며 특히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최우수 선사로 현



대상선이 선정된 것은 고품질 서비스를 현대상선이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니는 매년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송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 수송능력, 협력관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우수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대상선은 20여개 세계 일류 해운업체 대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선정됐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세계 유수기업인 소니로부터 최우수 선사로 연이어 선정된 것은 소니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주효했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3월 미국 롱비치와 타코마에서 운영중인 터미널이 태평양해운협회(PMA)로부터 ‘최우수 안전상’을 3년 연속 수상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로부터 로지스틱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현대상선의 9만3,000톤급 화물 ‘현대 올림피아’호가 우수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선정돼 5월25일 광양에서 상패를 수여받았다.

해양경찰청에서는 1997년부터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 ship)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모범선박으로 지정된지 4년이 지난 선박들만을 대상으로 또다시 심사를 거쳐 우수 해양환경 모범선박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해양경찰청의 전국 모범선박 119척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결과, 현대상선의 ‘현대 올림피아’호가 Green Ship 중의 Green Ship인 우수 해양환경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우수선박으로 선정된 선박은 상징패를 수여 받는 한편, 3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선박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선박점검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현대상선은 그 동안 선박과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을 마련, 실행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은 18척의 Green ship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폐기물 생성량 최소화, 대기 오염 방지, 자원 사용 억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두고 선박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개선 및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운항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대비 폐유 발생율이 1996년 1.58%이었고 2004년에는 1.39%까지 낮추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현대상선은 “전체 Green Ship의 15%를 현대상선이 보유함으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환경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해운업체에게 해양환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아해운

윤리헌장 제정선포

흥아해운(회장 이운재)은 6월7일 ‘흥아해운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 흥아해운 이운재 회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 비윤리적인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며, 기업의 윤리경영은 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종합물류 회사로 도약하여, 세계 속의 흥아해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흥아해운 윤리현장'은 임직원의 윤리의식함양,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주주의 권익보호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로지텍

RFID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해운물류 IT전문기업 사이버로지텍(www.cyberlogitec.com, 대표 김종태)이 'RFID 기반의 감염성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지명됐다.

사이버로지텍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기물관리 분야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RFID 적용 선도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RFID 기반의 감염성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우정보시스템(주)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RFID를 이용한 선도사업의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동 사업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고도화하고 추적 서비스

를 제공하여 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대우정보컨소시엄은 그간 감염성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보여왔던 각종 비효율적 요소들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컨소시엄이 동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최적의 구성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폐기물 인계업무 정보화 사업'과 'RFID 기반의 공장/역무, 도서관 자동화 사업'에 참여한 대우정보시스템과 '해양수산부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에 주관사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사이버로지텍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합친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 빠르게 완벽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대우정보컨소시엄은 고품질의 검증된 RFID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 최적화된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강한 내구성을 가진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으로 인증된 RFID 장비를 활용, 타 장비와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해기사협회

원로 해기사 초청 간담회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박찬조)가 지난 5월25일 오후 5시 부산역 앞 아리랑호텔 10층 연회장에서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로 해기사 선배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원로 해기사 간담회에는 전 협회장 이준수 박사(한국해양대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의 원로 해기사가 참석했다.